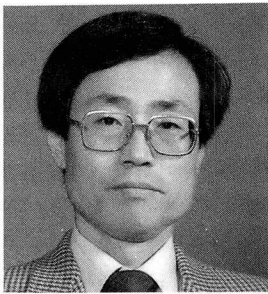


설정하고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자칫 독주로 흐를 때, 민간부문은 소외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예기치 못했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또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화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설정하는데 참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정보처리시스템을 중앙집중방식으로 처리하려는 발상을 궤도수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중앙집

중식 정보처리방식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보의 분산처리방식의 정비를 위한 법적·사회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이는 바야흐로 도래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모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보체계가 될 것이며, 지방정치시대·지방문화시대를 만개시켜 전국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모름지기 정보는 흐름이며 이 흐름이 정보화사회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朴 相 晳

〈연세대학교 교수〉

정보를 교환·공유하는 복되고 풍요로운 사회

정 정보화사회는 문자, 기호, 도형 및 수치 등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의미를 부여한 정보를 축적하여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로 볼 수 있다. 대량소비에서 한 걸음 나아가 탈공업화 사회를 추구하는 인류의 노력이 점차 첨단과학기술의 개발에 치중하게 되었고,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화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농업사회와 공업사회에서는 생산요소로서의 토지, 노동, 자본이 유한하고, 동시에 이용되지 않는 것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함에 따라 새로운 정보가 생겨나는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업사회가 인간의 노동과 자본에 의해 물질 재화의 생산에 만족하였다

면, 정보화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정보를 중요한 경제재로서 파악하고 이의 생산, 가공, 저장, 처리뿐만 아니라 유한한 자원의 배분, 활용을 위한 생산 요소로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진전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고 수요의 고도화 및 다양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로 일컬어지는 사무자동화, 공장 자동화 등의 「산업의 정보화」, 홈 쇼핑, 홈 बैं킹 등의 「가정의 정보화」,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사회의 정보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보화가 파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사회

특집 I

정보화사회의 비전

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인 네트워크로써 유기적으로 결합하는데에서 더욱 가능하여지고 있다.

앞으로 모든 사람이 어떠한 곳에서라도 모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고, 또 상호작용적인 쌍방향 통신이나 정보취득이 가능하게 되는 다중 종합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이 되어 정보 창조의 활성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확보, 그리고 정보 이용자의 정보선택 기회 및 정보의 공유화를 촉진하게 되는 동시에 사회적 제반기능을 효율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사회의 조기 실현이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전전자 교환기술, 종합정보 통신망기술, 광통신기술, 전파자원 활용기술 등의 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 반도체기술 등의 연구개발 투자와 실천 계획의 추진을 진행 중에 있어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보화사회가 구현되면 전개될 상황을 몇가지 생각하여 본다.

첫째, 각종의 정보 미디어와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한 다층적인 종합네트워크의 구축으로써 풍부한 정보를 어디서나 취득하고 이용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개인의 활동영역도 정신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여러분야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적 능력을 발휘시켜 개인은 물론 가정, 기업,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 공동

체의 복지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정보화사회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마이크로 닉스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공 조립과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하는 동시에 수요의 개성화, 다양화에 따른 의료, 유통, 오락 등의 사회 여러 측면에서 서비스업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변화, 업종의 통합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큰 변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세째, 정보화사회는 보다 인간성이 존중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국민 생활이 실현될 것이다.

네째, 앞으로의 국제관계는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상호의존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따라서 국제 협력과 국제교류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여건하에서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통신의 극대화로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인류의 복지 향상과 세계 평화의 정착에 기여하여 국제교류 사회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이 제기한 문제들을 지성과 이해로써 극복하려는 건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李 門 浩

(全北大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가치관과 산업구조 및 생활패턴의 변화예상

리들은 눈을 뜨면 간밤에 쇼킹한 뉴우스가 없나하고 조간신문이나 TV,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는 정보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의 정신적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두되는 사람들의 욕구의